

언어관습을 통하여 본 영어와 조선어의 례의표현방식에서의 차이

주 권 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례절이 바른 우리 인민의 풍습은 언어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같은 말이라도 웃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동년배에게 하는 말이 달랐으며 아래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우리 나라가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은 우연한것이 아닙니다.》(《김정일전집》 제6권 122~123페이지)

세계의 모든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생활풍습, 사고방식 등 해당 민족에 의하여 오랜 역사적시기를 거쳐 이루어진 민족문화를 반영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토대한 민족언어들의 관습화된 표현방식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연구하는것은 문화적차이로 인한 의사교환에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언어교제를 보다 원활히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관습화된 례의표현방식에서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점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례의표시와 관련한 표현방식에서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어의 표현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특징지어진다면 영어에서는 겸손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쓰지 않는다는것이다.

근면하고 강의한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례의를 지키는것을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으로 여겨왔으며 조선은 례의도덕이 밝은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선사람들은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이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추어올리는것을 싫어하였으며 겸손하게 처신하는것을 미덕으로 본다. 이러한 미풍량속은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식사할 때, 상대방의 칭찬에 응답할 때 등 여러 계기들에서 나타난다.

실례로 조선사람들은 식사에 손님을 초청하면 겸손하게 《변변치 않은 식사지만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차린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말로써 례의를 표시한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식사가 변변치 않아 안됐습니다.》라고 흔히 말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사를 준비한 자기의 노력은 낮추고 초청에 응하여 식사에 와준 손님의 수고를 헤아리는것으로서 조선사람들의 겸손성을 보여주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겸손성을 표현하는 관습이 없다. 미국사람들과 영국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의 노력과 능력, 자기의 성공이다. 그러므로 식사에 초대된 사람에게 《변변치 않은 식사》, 《아무것도 차린것이 없는 식사》라는 말은 자기가 성의가 없으며 능력도 없다는것을 시사하는 말로 되므로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식사에 초대된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어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그에 따라 손님을 초대한 자기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고 보기때문이다. 때문에 식사에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손님에게 하는 말은 많은 경우 《I hope you will like the food.》(이 음식이 당신 구미에 맞기 바랍니다.)이며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도 《I hope you liked the food.》(음식이 구미에 맞았겠지요.)로 된다. 이로부터 그들은 적

지 않은 경우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 차린 음식준비와 관련된 세부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기며 이 과정에 자기의 노력과 요리솜씨를 은근히 자랑한다.

조선사람이 준비한 식사에 초대된 영국사람에게 《변변치 않은 식사지만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차린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식사가 변변치 않아 안됐습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다면 조선사람들의 풍습을 모르는 영국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하면 괜찮게 준비한 식사인데 변변치 못하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차린것을 잘 차린것으로 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며 또 이견 얼마 안되는것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몇배로라도 더 차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 집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깡그리 내놓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후한가를 알아달라는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의도하였던 레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적차이를 가진 사람들사이에 언어교제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른 실례로 《변변치 않은 식사지만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차린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식사가 변변치 않아 안됐습니다.》라는 조선어 표현은 경우에 따라 영어로 《Thanks for coming to the dinner.》, 《Please help yourself.》, 《I hope you will like the food.》, 《I hope you will enjoy the dinner.》, 《I hope you liked the food.》, 《Did you like the food?》라고 옮길 수 있다.

반대로 영국사람이 초청한 식사에 초대된 조선사람에게 그가 《I hope you will like the food.》 혹은 《I hope you will enjoy the dinner.》라고 한다면 이말을 구태여 《변변치 않은 식사지만 많이 드십시오.》라고 의역하여 통역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음식이 당신 구미에 맞기 바랍니다.》라는 말로써도 조선사람에게는 충분히 레의의 표시로 안겨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영어의 관습에 맞으며 의도하였던 교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발표회에 출연할 때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때 조선사람들은 자주 겸손성의 표시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 《잘 준비하지 못했지만 ...》라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겸손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영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자기 자랑을 하는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지만 영국에서 자기를 사실보다 낮추는것은 거짓겸손성으로, 좋지 않은것으로 평가된다. 그들은 새 제품에 대한 소개 모임이나 발표회 등에서 출연자가 자신심과 전문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 혹은 《잘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을 때는 경우 자신심이 부족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설사 뒤이어 류창한 영어가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실지 사실과 맞지 않은 《겸손성》을 보여준데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다.

칭찬에 대한 응답의 측면에서도 영어와 조선어에서 표현방식이 차이난다.

조선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의 말을 하면 표면상으로는 부정하는 말로써 응답한다. 실례로 누군가가 《동무가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하였소. 정말 수고가 많았소.》라고 한다면 《저야 한계 있습니까, 다 옆에서 도와주었기때문이지요.》라고 자기를 낮춘다. 또 《참 영어를 잘하십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며 집에 왔던 손님이

《집의 아이가 참 똑똑하군요.》라고 칭찬할 때에도 《아직 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관계되는것을 겸손하게 낮춘다.

그러나 영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대신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다. 때문에 이들은 《당신이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수고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것을 알아주며 인정해주어 고맙다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 보통이다. 지어 미국에서는 자기가 한것에 대해 광고하는것이 문화적으로 접수될수 있는 일로 간주되고있다. 때문에 조선어관습대로 《뭐 저야 한게 있습니까, 다 옆에서 도와주었기때문이지요.》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는것으로 리해할수 있으며 설사 겸손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해도 이것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겸손성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칭찬의 말을 할 때에는 《감사합니다.》로 응답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며 조선사람들과 말할 때에는 될수록 겸손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례의표시와 관련한 표현방식에서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는 다음으로 조선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름과 함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를 많이 쓰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이름만을 사용한다는것이다.

조선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름과 함께 호칭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조선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김동무》, 《철호동무》, 《국장동지》, 《위원장동무》와 같이 이름이나 직무명뒤에 《동무》, 《동지》라는 호칭어를 붙여쓰고있다. 상대방이 교원이나 의사인 경우에는 《김선생》, 《영철선생》과 같이 《선생》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한다.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삼촌》, 《이모》, 《형》, 《누나》, 《언니》와 같은 단어들을 이름과 함께 쓰거나 이름이 없이 그대로 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선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 이름과 함께 일정한 호칭어를 붙여 사람들을 부른다. 아무런 호칭어도 없이 그저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서로 부를 때, 보다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비공식적으로 서로 부를 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부르거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로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대체로 호칭어를 쓰는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관계를 명백히 하려는데로부터 형성된 관습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사람들은 영어로 말할 때에도 이러한 언어관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영어회화를 할 때 자주 《Comrade Yong Chol》, 《Comrade Myong Ho》라고 하고있으며 어른들도 영어로 말할 때 《Mr Kim》, 《Mrs Pak》과 같이 칭호를 계속 붙여 부르고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호칭어사용은 지난 50년동안 크게 변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남자들에 대하여서는 《Mr》, 결혼한 여성들에 대하여서는 《Mrs》,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서는 《Miss》를 이름앞에 많이 사용하였다. 여성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과 더불어 여성들에게도 남자들에 대하여 쓰는 《Mr》와 같이 호칭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Ms》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러한 호칭사들이 서로의 관계를 딱딱하게 하고 친밀감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쓰지 않고 서로 이름만으로 찾고부른다.

결과 현재 이러한 호칭어들은 행사와 같은 매우 공식적인 계기들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로 국한되고있으며 아는 사람들사이에는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이름만 부르고있다. 영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사이에 인사소개가 있는 다음에는 《그저 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저 매어리라고 불러주십시오.》라는 말이 인사말의 한 부분처럼 되어가고있다. 지어는 상급과 하급사이에 하급이 상급에 대하여 이름만 부르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형제들사이, 부부사이에 이름만 부른다. 칭호가 없이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경우는 없다.

례의표시와 관련한 표현방식에서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는 다음으로 조선어의 인사말에서는 표현상 상대방의 안녕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고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타난다면 영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적다는것이다.

조선사람들의 기본인사는 《안녕하십니까?》로서 아무 탈없이 편안한가를 물어보는 말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인사말들이 다 그러하듯이 조선말인사 《안녕하십니까?》도 실지 상대방의 안녕을 물어보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구태여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어에도 여기에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인사말들인 《Hello.》, 《Hi.》,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과 같은 인사말들이 있다.

조선말인사 《건강하십니까?》와 《건강은 어떻습니까?》는 앞에서 언급한 례의상의 인사와는 구별되며 이 인사표현은 상대방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념려와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한다.

건강을 물어보는것으로 되어있는 영어의 인사말 《How are you?》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의나 형식상의 인사로 되어있다. 그것은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거의 언제나 《Fine, thank you.》(덕분에 건강합니다.)로 나오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조선말인사말에는 상대방의 수고를 헤아리는 인사말이 있다. 이것은 《수고합니다.》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말에서 표현된다.

조선말에서 《수고》라는 말은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힘을 들이는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수고하다》는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거나 위로할 때 쓰는 인사말이다. 비행장에서 외국손님을 맞이하면서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는것도 상대방의 수고를 헤아리는 인사인것이다. 현재 많은 조선사람들이 이 말을 인사말로 사용하고있다.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고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서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에 해당되는 일상인사말이 없다. 그러므로 조선말인사 《수고합니다.》를 영어로 옮길 때에는 영어의 일상적인 인사말들인 《Hello.》, 《Hi.》,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가운데서 경우에 맞게 적중한것을 골라 써야 한다. 그리고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에 대하여서는 《Did you have a good journey?》와 같이 영어에서 굳어진 표현을 리용하여 옮기는것이 좋다.

우리는 문화적차이로 인한 언어관습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보다 높은 외국어활용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